

# 성서언어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안 증 환\*\*

(e-mail : ajw7340@hanmail.net)

---

## 目 次

---

1. 서론
  2. 본론
    - 2.1. 1인칭대명사
    - 2.2. 2인칭대명사
    - 2.3. 3인칭대명사
  3. 결론
- 
- 

## 1. 서 론

본고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두 나라 성서언어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를 비교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서언어는 성서라는 텍스트에 쓰인 위상어이며 번역어이다. 성서번역은 word to word라는 축자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초기 번역본이 수차에 걸쳐 개역되면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 각각에 한국어 특징과 일본어 특징이 투사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에 성서언어가 확고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본고는 초기 번역성서에 나타난 인칭대명사가 성서의 개역과정을 거쳐 어떻

---

\* 본 논문은 2008년도 한남대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게 변해 가는가를 비교 추적함으로써, 인칭대명사에 나타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칭대명사라는 좁은 영역의 언어범주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도 두 언어의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조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대조자료가 된 성서는 한국어의 경우 로스역(1887), 舊譯(1911), 개역(1954), 공동번역(1977)이고 일본어의 경우 明治譯(1880)<sup>1)</sup>, 大正譯(1917), 口語譯(1954), 新共同譯(1987)이다.

인칭대명사 대조연구에서 성서언어를 자료로 한 선행연구는 안증환·배은성(2005)이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성서를 비교한 것으로, 번역성서 전체를 조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의 성서언어가 대조자료가 된 인칭대명사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 성서의 대명사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몇 편 있다. 예를 들어 서정수(1985)와 전무용(2006) 등인데, 전자는 『마가전복음서언해(1884)』 『예수성교전서(1887)』 『성경직해(1897)』 『신약전서(1900)』 등 한국어 초기 성서의 인칭대명사를 비교하고 있고, 후자는 초기 성서번역의 단초가 된 로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어 문법서 대명사 기술에서 출발해 『표준새번역(1993)』 까지에 나타나는 한국어 인칭대명사 표기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이하 필자는 두 언어의 성서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대조하기로 한다. 즉 번역시기가 유사한 성서를 대조하면서 인칭별로 시기에 따라 각각 어떤 대명사가 발견되는가를 대조비교하고, 성서개역에 따라 달라지는 인칭대명사의 표현양상의 변화를 분석해 두 언어문화권의 상대적 특징을 비교하기로 한다.

## 2. 본 론

### 2.1. 1인칭대명사

대조의 출발점으로 삼은 로스역성서(1887)와 明治譯성서(1880) 등 초기 한국과 일본의 번역성서에 나타난 1인칭대명사 단수형은 각각 ‘나’와 ‘넌’, 「われ」와 「わ」 등 두 개씩이고, 복수형은 ‘우리’와 「われら」 하나씩만 나타난다. 한국어 ‘저’나 ‘우리들’ ‘저희(들)’, 일본어 「われわれ」 등은 보이지 않는다. 먼저 1인칭 단수형을 보기로 한다.

- (1)a. 나는너희게일오나니너희원슈를사랑하며너희를군박흐는자를빌나 (마5:44)  
 b. 같오디쥬나를씨나소서나는죄인이라호고(눅5:8)

1) 필자가 자료로 활용하는 明治譯은 1884년 간행본임을 밝혀둔다.

- (2)a. <sup>われ</sup>我<sup>なん</sup>ならに<sup>つげ</sup>告<sup>なん</sup>ん<sup>ちら</sup>らに<sup>あだ</sup>敵<sup>いひ</sup>を<sup>なん</sup>愛<sup>なん</sup>み<sup>ちら</sup>爾<sup>の</sup>を<sup>もの</sup>を<sup>しゆ</sup>を<sup>く</sup>祝<sup>し</sup> (마5:44)  
 b. <sup>しゆ</sup>主<sup>われ</sup>我<sup>さり</sup>を<sup>われ</sup>離<sup>つみ</sup>たまへ<sup>いへ</sup>我<sup>ハ</sup>罪<sup>人</sup>なりと<sup>い</sup>曰<sup>り</sup> (눅5:8)
- (3)a. 넋가<sup>나</sup>나<sup>아</sup>가<sup>면</sup>너<sup>희</sup>계<sup>유</sup>익<sup>할</sup>거<sup>시오</sup> (요16:7)  
 b. 넋령<sup>혼</sup>이<sup>나</sup>를<sup>구</sup>완<sup>하</sup>는<sup>하</sup>나<sup>님</sup>을<sup>깃</sup>버<sup>히</sup>더<sup>니</sup> (눅1:47)
- (4)a. <sup>わが</sup>我<sup>ゆ</sup>く<sup>なん</sup>ちら<sup>え</sup>益<sup>なり</sup> (요16:7)  
 b. <sup>わが</sup>我<sup>は</sup>靈<sup>わ</sup>が<sup>す</sup>救<sup>し</sup>主<sup>か</sup>なる<sup>か</sup>神<sup>を</sup>を<sup>よろこ</sup>喜<sup>ぶ</sup> (눅1:47)

(1)(2)의 ‘나’와 「われ」가 대표형이고 (3)(4)의 ‘넋’와 「わが」는 통어적 이형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즉 한국어 (3)의 ‘넋’은 (3a)처럼 주격조사 ‘가’의 앞이나 (3b)처럼 ‘나의’라는 명사수식형에 해당하는 이형태이다. (4)의 일본어 「わが」역시 명사수식형으로 「われ」의 이형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어明治譯성서는 「われ」와 「わが」의 차용한자로 「我」를 쓰고 있다.

한편 1인칭 복수형에서는 두 언어 모두 이형태 없이 ‘우리’와 「われら」만이 있고, 일본어 「われら」의 차용한자는 「我儕」이다.

- (5)a. 우리는<sup>키</sup>리<sup>스</sup>토<sup>를</sup>위<sup>하</sup>여<sup>밀</sup>연<sup>하</sup>고<sup>(고</sup>전<sup>4:10)</sup>  
 b. 우리죄<sup>를</sup>사<sup>하</sup>여<sup>주</sup>시<sup>문</sup>우<sup>리조<sup>호</sup>우<sup>리계<sup>진</sup>자<sup>를</sup>사<sup>하</sup>여<sup>주</sup>미<sup>니</sup>이다<sup>(눅11:4)</sup></sup></sup>
- (6)a. <sup>われら</sup>我<sup>は</sup>キ<sup>リス</sup>ト<sup>の</sup>為<sup>に</sup>愚<sup>なる</sup>者<sup>と</sup>なり<sup>(고</sup>전<sup>4:10)</sup>  
 b. <sup>われら</sup>我<sup>は</sup>儕<sup>に</sup>罪<sup>を</sup>犯<sup>す</sup>者<sup>を</sup>凡<sup>て</sup>免<sup>せば</sup>我<sup>ら</sup>の<sup>つみ</sup>罪<sup>をも</sup>免<sup>し</sup>給<sup>へ</sup><sup>(눅11:4)</sup>

다음은 한국어 舊譯(1911)과 일본어 大正譯(1917)이다. 먼저 한국어 舊譯에서는 겸양의 대명사 ‘저’가 보이기 시작한다.

- (7)a. 길<sup>에</sup> 히흥<sup>실</sup> 세에 <sup>혹</sup>이 <sup>엿</sup>즈와 <sup>굴</sup>으<sup>디</sup> 어<sup>디</sup>로 <sup>가</sup>시<sup>던</sup>지 저(←<sup>나</sup>)<sup>는</sup> <sup>좃</sup>치<sup>리</sup>이다 <sup>히</sup>니<sup>(눅9:57)</sup>  
 b. 엿<sup>던</sup> <sup>법</sup>관<sup>이</sup> 무<sup>러</sup> <sup>굴</sup>으<sup>디</sup> <sup>착</sup>흔 <sup>선</sup>성<sup>님</sup>이<sup>여</sup> 제(←<sup>넋</sup>)<sup>가</sup> 무<sup>슨</sup> <sup>일</sup>을 <sup>하</sup>여<sup>야</sup> <sup>영</sup>심을 <sup>엇</sup>으<sup>리</sup>잇<sup>가</sup> <sup>히</sup>니<sup>(눅18:18)</sup>

(7a)의 ‘어디로 가시던지’의 ‘시’나 (7b)의 ‘선성님이여’에서 알 수 있듯이 예문(7)에서 화자의 담화상대는 존경대상이다. 때문에 1인칭 겸양의 대명사 ‘저(제)’가 쓰이는 것은 한국인의 언어감각에 맞는다. 로스역에서 이들은 모두 ‘나(넋)’로 표기되어 있다. 1인칭대명사에서 舊譯성서가 로스역과 구분되는 명백한 차이이나, 이런 것이 舊譯성서 전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2) 예문 괄호 안의 단어는 바로 이전에 번역된 성서 속의 단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하 동일함.

- (8)a.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릅 아래 엎드려 굴으되 주여 나를 썬나 쇼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눅5:8)  
 b. 쇼경이 불너 굴으되 다윗의 즈손 예수여 진를 긍휼히 녀이쇼셔 흥거늘 압서 가는자가 꾸지져 줌줌흐라 흥되 더가 더욱 심히 소리질너 굴으되 다윗의 즈 손이여 나를 긍휼히 녀이쇼셔 (눅18:38~39)

(8a)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한테 말하면서 자신을 ‘저’가 아닌 ‘나’로 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b)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담화인데도 ‘나’와 ‘저’가 혼재되어 있어 엄격한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성서개역에서도 당분간 계속된다.

한편 明治譯과 마찬가지로 文語體를 쓰고 있는 일본어 大正譯성서에서는 1인칭 복수대명사에서 차용되는 한자 등의 표기에 변화가 나타날 뿐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9)a. 我ら<sup>おひめ</sup>に負債ある者を我ら<sup>ゆる</sup>の免したる如く、我ら<sup>おひめ</sup>の負債をも免し給へ。(마6:12)  
 b. 我等<sup>おひめ</sup>もしキリストと共に死にしならば、また彼とともに生きんことを信ず。(롬6:6)

즉 (9)를 보면 明治譯의 「我儕」가 「我ら」「我等」등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我ら」「我等」는 현대 일본어 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서언어를 근거로 보면 大正譯성서가 나오던 시기가 가나(仮名)문자와 한자가 혼용되는 일본어 표기에서 차용한자의 선택 등 현대 일본어의 토대가 만들어졌던 때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개역성서(1956)와 일본어 口語譯성서(1954)이다. 한국어 개역성서의 1인칭대명사는 ‘나’ ‘저’ ‘우리’외에 舊譯성서에 없던 1인칭복수 ‘우리들’이 첨가된다. 한편 일본어는 문체가 文語體에서 口語體로 바뀌면서 성서언어의 인칭대명사 표기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1인칭대명사도 단수형이 「我」에서 「わたし」로 바뀌고 복수형은 분화를 보인다.

먼저 단수형이다. 한국어 개역성서에서 1인칭단수는 舊譯과 마찬가지로 ‘나’와 ‘저’가 뚜렷한 기준이 없이 혼재되고 있으며, 舊譯에서 ‘저’였던 것의 일부가 다시 ‘나’로 바뀐 예도 보인다.

- (10)a.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진는 좃으리이다(눅9:57)  
 b.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18:18)

(10)의 출처는 예문(7)과 동일하다. 그런데 (10b)의 1인칭대명사가 ‘저’에서 다시 ‘나’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 성서언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대가 준

경대상인 경우 ‘나’와 ‘저’는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한 것이 되어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舊譯성서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일관성을 잃은 번역상의 오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지 성서언어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한편 일본어 口語譯은 앞의 大正譯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것은 문체가 文語體에서 口語體로 바뀌기 때문인데, 1인칭대명사 단수에서는 일률적으로 「我(われ、わが)」가 「わたし」로 바뀔 뿐 특이할 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 (11)a. 「わたしは主のはしためです。お言葉どおりこの身に成りますように」(눅1:38)  
 b. 「あなたはわたしの愛する子、わたしの心になう者である」(눅3:22)

문맥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11)의 「わたし」는 (11a)에서는 윗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11b)에서는 아랫사람을 대해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일본어 口語譯성서에서는 口語임에도 불구하고 「ぼく」등이 나타나지 않고 「わたし」로 통일되어 표기된 것이 특징적으로, 「わたし」의 사용범위가 넓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뒤에서 고찰하겠지만 1인칭 복수대명사의 경우는 담화상대에 따라 주목할 만한 이형태들이 눈에 띈다.

한국어 개역성서와 일본어 口語譯성서에서 1인칭 복수대명사를 살펴보면, 한국어는 ‘우리’의 이형태인 ‘우리들’이 나오고(12), 일본어는 「我ら」가 사라지고 「我々」「わたしたち」「わたしども」등으로 분화되고 있다(13).

- (12)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눅5:5)  
 (13)a. 諸君はこの人たちをここにひっぱってきたが、彼らは宮を荒らす者でも、われわれの女神をそしるものでもない。(행19:37)  
 b. 彼はわたしたちの仲間に加えられ、この務を授かっていた者であった。(행1:17)  
 c. 両親は答えて言った、「これがわたしどものむすめであること、…」(요9:20)

한국어 개역성서에서 ‘우리들’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출현하지 않을 뿐더러, (12)의 ‘우리들’을 ‘우리’로 교체시킨다 해도 의미상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sup>3)</sup>. 그러나 일본어 口語譯의 1인칭대명사 복수형 「われわれ」와 「わたしたち」、「わたしども」 사이에는 의미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그 차이는 결국 정중도와 관계된 것으로 「われわれ」는 「わたしたち」보다 정중

3) 그러나 다음 예문과 같이 ‘우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할 경우는 ‘우리들’로의 교체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눅 1:55)

도에서 떨어지고, 「わたしども」는 「わたしたち」의 비하어로 볼 수 있다. 이런 구분은 口語譯성서의 1인칭대명사 단수형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으로, (14)~(16)의 예가 이를 증명한다.

- (14)a. 十字架にかけられた犯罪人のひとりが、「あなたはキリストではないか。それなら、自分を救い、またわれわれも救ってみよ」と、イエスに悪口を言いつづけた。(눅23:39)
- b.ところが、農夫たちは彼を見ると、『あれはあと取りだ。あれを殺してしまおう。そうしたら、その財産はわれわれのものになるのだ』と互に話し合い、(눅20:14)
- (15)a. 取税人もバプテスマを受けにきて、彼に言った、「先生、わたしたちは何をすればよいのですか」。(눅3:12)
- b.七十二人が喜んで帰ってきて言った、「主よ、あなたの名によっていたしますと、悪霊までがわたしたちに服従します」。
- (16)a.ところがイエス自身は、舳の方でまくらをして、眠っておられた。そこで、弟子たちはイエスをおこして、「先生、わたしどもがおぼれ死んでも、おかまいにならないのですか」。(막4:38)
- b.悪霊どもはイエスに願って言った、「もしわたしどもを追い出されるのなら、あの豚の群れの中につかわして下さい」。(마8:31)

각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a)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옆에 같이 달렸던 다른 사람이 예수를 비웃으며 한 말이고, (14b)는 특별히 담화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중한 말투는 기대되지 않는 장면이며, 이것이 口語譯에서 「われわれ」의 구별된 의미가 된다<sup>4)</sup>. (15a)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사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세금 뜯는 사람이 예수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장면이고, (15b)는 스승에게 와서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わたしたち」는 이처럼 담화대상이 의식된 상황에서 자신들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복수형이 된다. 한편 (16a)는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려는 위기상황에서 선생님을 부르는 상황이고, (16b)는 악령들이 예수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어 성서언어에 나타난 「わたしども」는 자신들을 비하시키는 겸양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동번역(1977)과 일본어 新共同譯(1987) 속의 1인칭대명사이다. 한국어 공동번역은 개역성서에서 보였던 단수형 ‘나’와 ‘저’의 혼동을 비로소 수습시키고 있고<sup>5)</sup>(17), 일본어는 단수형에 「わたくし」가 새롭게

4) 広辞苑의 “(1)わたくしたち、われら (2)自分の謙称、わたくしのようなもの”와는 차이가 있다.

출현한다(18).

- (17)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나)는 죄인입니다. 저(←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눅5:8)
- (18) 「それで、どうか忍耐をもって、私の申すことを聞い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행26:3)

한국어 공동번역에서는 (17)처럼 화용론적 이형태 ‘나’와 ‘저’가 엄밀히 구분되고 있어 한국인 언중의 언어습관이 성서 번역에 제대로 반영되게 된다. 반면 (18)의 일본어 新共同譯 안의 「わたくし」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가 상황의존적인 언어라서 「わたくし」「わたし」「ぼく」등 한국어보다 더 많은 1인칭대명사의 이형태를 가진 점을 고려한다면 「わたくし」와 같은 「わたし」의 이형태가 성서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세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복수형에서는 (19)(20)에서 보듯이 한국어 성서에서 ‘우리들’과, 일본어 성서에서 「わたしども」의 출현빈도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외에는 특징적인 것이 없다.

- (19)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와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우리)도 눈이 멀었던 말시오?”하고 대들었다.(요9:40)
- (20) 「わたしども(←わたしたち)の先祖はこの山で礼拝しましたが、あなたがたは、礼拝すべき場所はエルサレムにあると言っています。」(요4:20)

## 2.2. 2인칭대명사

1인칭대명사와는 달리 2인칭대명사의 경우는 초기 번역성서부터 한국어와 일본어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인칭대명사 단수형에서 한국어 로스역은 ‘너’와 ‘그딴’ 두 개가 나타난 반면에(21), 일본어 明治譯은 「爾(なんぢ)」하나만 보이기 때문이다(22). 그러나 복수형에서는 로스역과 明治譯 모두 ‘너희’와 「爾ら」하나씩이다(23).

- (21)a. 귀신이 열어사름으로나와불너갈오되너는하나님의아달이라호니(눅4:41)  
 b. 요안너두메자를불너쥬의게보너여갈오되맛당히올자가그딴노물오미달은사름올기다리라는가호라호니 (눅7:19)

5) 다만 이 문제는 간단히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이후의 번역성서 몇 개에서 또 다시 ‘나’와 ‘저’가 뚜렷한 기준 없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한국어 최신번역본을 본다면, 공동번역(1977)과 표준새번역(1993)이 한국인의 언어감과 일치하고 표준새번역개정판(2003)과 개역개정(2003)은 그렇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22)a. 惡鬼あくきも亦多またおほくの人々ひとびとを出いでさり喊叫さけびて爾なんぢは神かみの子こキリストなりと云いへり(눅4:41)  
 b. ヨハネ二人ふたりの弟子でしを召よびて言遣いひつかほしけるハ來きたるべき者ものハ爾なんぢなるか亦またわれら他ほかに俊まつべき乎か(눅7:19)
- (23) 아히달이당니에은저서로불너갈오디우리피릭틀불되너희썬닐거리지은코(눅7:32)  
 童子市わらべちまたに坐ぎし互たがひに呼よびて我儕われら笛ふえふけども爾曹なんぢら踊どろず(눅7:32)

(21)과 (22)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 로스역이 2인칭대명사에서 ‘너’와 ‘기디’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일본어 明治譯은 그 구분이 없이 「爾」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기디’도 아주높임대상에 대한 존칭은 아니다. 때문에 상대가 아주높임대상일 경우, 한국어 성서는 ‘쥬’나 ‘딤인’, ‘선칭’, ‘공’ 등 일반 명사로 인칭대명사를 대신시키거나(24)6), 생략시켜 버리는 현상이 발견된다(25).

- (24)a. 我われこれこを逐おひいだ出す事ことを爾なんぢの弟子でしに求もとめしかど能あたはざりき(눅9:40)  
 a'. 쫓출쥬업기료쥬의데자게쫓기틀구히되능치못하다하니(눅9:40)  
 b. 然されど我われこの事ことを爾なんぢに認あらさん(행24:14)  
 b'. 너이를딤인의게발키고하리니(행24:14)  
 c. 라비我儕われら난なんぢ치는神かみより來きたりし師しなりと知しる(요3:2)  
 c'. 랍비야우리는선칭이하나님으로부터온스승인줄아는거시(요3:2)  
 d. 今いますでに其豫備そのそなへをなして爾なんぢの許ゆるしを俊までり(행23:21)  
 d'. 이제등디하여오직공의허락을기디리미라하니(행23:21)
- (25)a. 大衆おほぜいの中うちより或あるパリサイひとの人ひとイエスいひに曰いひけるハ師しよ爾なんぢの弟子でしを責いましめよ(눅19:39)  
 a'. 못사름중에두어바리시인이예수의게갈오디선칭님데자를척망하소서하니(눅19:33)  
 b. 或あるパリサイひとの人ひとかれらいひに曰いひけるハ爾曹なんぢら安息日あんそくにちに行すまじき事ことを行するハ何故なぜぞ(눅6:2)  
 b'. 바리시인이혹갈오디사밧일에헝하기가합당치못할바를엇지헝하느냐(눅6:2)

로스역과 明治譯 성서의 한국어와 일본어 2인칭대명사에서 예문 (24)~(25)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대로 일본어 「爾」 「爾曹」는 존칭이나 비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한국어에는 ‘너’를 비롯해 특정한 대명사에 그런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다.

6) 이런 현상은 한국어 舊譯에도 계속 적용된다.  
 人々ひとびとこたへけるは彼かれもし惡あくを行なせる者ものに非あらず爾なんぢに解わたさじ (요18:30) <明治譯>  
 디답하여갈오디악을한자가은이면우리가잡아사또의게닐오지만아실이다 <로스역>  
 디답하야 글오디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헝치아니하엿더면 각하의게 잡아오지아니하엿겄노라 <舊譯>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舊譯과 일본어 大正譯 성서에도 지속된다. 일본어 大正譯의 2인칭대명사 표기에 나타난 변화는 차용한자 「爾」가 「汝」로 바뀌고 있는 것뿐이다(26). 한편 한국어 舊譯에서는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출현하면서 높임대상의 2인칭을 가리키게 된다(27)(27).

(26) いま我等はみな、主の汝(←爾)に命じ給ひし凡てのことを聽かんとして、(행10:33)

(27)a. 흑이 고히여 곶으되 당신(←주)의 모친과 동생들이 맞기 서서 보고저흐느이다(눅8:20)

b. 곶으되 략비여 우리가 당신(←선심)은 하느님의로브터 오신 선심인줄 아느이다(요3:2)

이렇게 해서 한국어 舊譯에는 2인칭대명사 단수형이 ‘너’ ‘그대’ ‘당신’ 등 셋으로 분화되어, 「汝」 하나 뿐인 일본어 大正譯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 舊譯의 2인칭대명사의 용법구분은 명확하지 않다(8).

다음은 한국어 改譯과 일본어 口語譯이다. 한국어 개역성서(1956)의 2인칭대명사는 舊譯과 마찬가지로 단수형에서는 ‘너’ ‘그대’ ‘당신’ 등 그대로이나 문말의 문체변화 등에 따라 ‘당신’의 출현빈도가 높아졌고(28), 복수형에서는 ‘너희’외에 ‘당신들’이 하나 첨가된다(29).

(28)a.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그대)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그대)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3:14)

b.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네)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눅8:49)

(29)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요9:27)

한편 일본어 口語譯성서는 文語體에서 口語體로 문체가 바뀌면서 2인칭대명사에 분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단수형은 「あなた」와 「お前」로, 복수형은 「あなたがた」와 「あなたたち」 그리고 「おまえたち」로 분화된다. 먼저 단수형이다.

7) 이처럼 한국어 舊譯성서에 ‘당신’이라는 2인칭대명사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범위는 상당히 제한된다. 한국어에서는 2인칭의 높임대상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칭대명사보다는 예문(24)와 같이 보통명사를 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다음에 보는 舊譯의 ‘령감’도 같은 기능을 한다. ‘령감은 너희 청함을 좃지마옵소서/汝その講に従ふな,’ (행23:21)

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면이라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절대 ‘그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마리아 녀인이 곶으되 그대가 유대인이 되어서 엇지흐야 나 사마리아 녀인드려 물을 달나 흐느나 흐니(요4:9)”

- (30)a. 彼はあなたに喜びと楽しみとをもたらし、多くの人々もその誕生を喜ぶであろう。  
 a'.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눅1:14)  
 b. 「ああ、ナザレのイエスよ、あなたはわたしたちとなんの係わりがあるのですか。」  
 b'.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눅4:34)
- (31)a. もうひとは、それをたしなめて言った、「おまえは同じ刑を受けていながら、神をおそれないのか。」(눅23:40)  
 a'.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눅23:40)  
 b. ああ、カペナウムよ、おまえは天にまで上げられようとでもいうのか。黄泉にまで落とされるであろう。  
 b'.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눅10:15)

(30)에서 「あなた」는 2인칭대명사 단수형의 대표인데, 이것은 한국어 성서의 ‘너’나 ‘당신’ 모두를 수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あなた」는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쓰이는 2인칭대명사이다. 그러나 일본어 성서의 2인칭대명사 「おまえ」는 (31)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비난이나 비하의 의미를 띠는 점에서 「あなた」와 구분된다. (31a)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 하나가 예수를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게 하라는 말에 다른 강도가 그를 질책하는 말이다. (31b)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의인화해서 「おまえ」라고 가리키고 있다. 역시 내용 자체가 탄식하는 것이어서 일본어성서에서 「おまえ」가 갖는 특별한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수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본어 口語譯의 2인칭대명사 복수형도 대표는 「あなたがた」이고(32), 「おまえたち」는 단수형 「おまえ」가 갖는 비난 혹은 비하의 뉘앙스를 확실히 한다(33). 그러나 극히 제한적이지만 「あなたたち」라는 또 하나의 복수형이 口語譯에 존재한다(34).

- (32)a. 彼らに言われた、「それではあなたがたはわたしをだれと言うのか」。  
 a'.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눅9:20)  
 b. 盲目的案内者たちよ。あなたがたは、わざわざである。あなたがたは言う、  
 b'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마23:16)
- (33)a. 「まむしの子らよ、迫ってきている神の怒りから、のがれられると、おまえたちにだれが教えたのか」。(눅3:7)  
 a'.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눅3:7)  
 b.それで、彼らが集まったとき、ピラトは言った、「おまえたちは、だれをゆるしてほしいのか」。  
 b'.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마27:17)

- (34) それは子供たちが広場にすわって、互に呼びかけ、『わたしたちが笛を吹いたのに、あなたたちは踊ってくれなかった。…』  
비유권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눅7:32)

「あなたがた」가 대표형이 되는 것은 (32b)에서 확인된다. 즉 (32b)는 문맥상으로는 (33)과 같이 비난과 질책을 함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おまえたち」가 아니라 「あなたがた」가 선택된 것을 보면, 「あなたがた」가 2인칭대명사 복수형의 대표인 것은 명백하다. (34)의 「あなたたち」는 口語譯 신약성서에 단 한번 출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의 의미비교가 어렵다. 한편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32)~(34)를 보면, 위상이 다른 일본어 「あなたがた」「おまえたち」「あなたたち」가 모두 한국어에서는 ‘너희’ 하나로 실현되고 있어, 단수형에서 ‘너’ ‘그대’ ‘당신’ 등으로 나뉘던 것과는 구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동번역과 일본어 新共同譯의 2인칭대명사이다. 이들 성서에 나타난 2인칭대명사의 종류는 한국어 改譯 및 일본어 口語譯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두 나라의 성서 모두 성서번역에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적 특징이 반영되도록 수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수형에서는 한국어 쪽에서 나타나고, 복수형에서는 일본어 쪽에서 나타난다. 먼저 한국어 공동번역에 나타난 변화로, 많은 부분의 2인칭단수형에서 ‘당신’이라는 대명사 출현위치에 ‘선생님’이라는 일반명사가 대신한다는 점이다(35).

- (35)a.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당신)이십니까?” (눅7:19)  
a'. 主のもとに送り、こう言わせた。「来るべき方は、あなたでしょうか。」  
b.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당신)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눅20:21)  
b'. 回し者らはイエスに尋ねた。「先生、わたしたちは、あなたがおっしゃることも、教えてくださることも正しく、また、えこひいきなしに、真理に基づいて神の道を教えておられ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35)의 한국어 성서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언어감각을 성서번역에 잘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현상은 예문(24)의 로스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어에 존칭과 비칭을 아우를 수 있는 2인칭대명사 부재라는 현실과 더불어 높임대상에 대해서는 인칭대명사보다 관직 등의 일반명사 사용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언어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일본어 新共同譯 성서의 2인칭대명사 복수형에서의 변화로, 口語譯에서는 특수한 경우밖에 나타나지 않던 「あなたたち」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36), 新共同譯에서 일본어 2인칭 복수형 「あなたがた」「あなたた

ち」 「お前たち」는 口語譯과는 출현조건을 달리 한다(37).

- (36)a. ファリサイ派のある人々が、「なぜ、安息日には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あなたたち(←あなたがた)はするのか」と言った。(눅6:2)
- b. ピラトは、祭司長たちと議員たちと民衆とを呼び集めて、言った。「あなたたち(←おまえたち)は、この男を民衆を惑わす者としてわたしのところに連れて来た。」(눅 23:13,4)
- (37)a. イエスは、「あなたがたの信仰はどこにあるのか」と言われた。弟子たちは恐れ驚いて、(눅8:25)
- b. 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たち律法の専門家も不幸だ。」(눅11:46)
- c. そこで、ピラトは改めて、「それでは、ユダヤ人の王とお前たちが言っているあの者は、どうしてほしいか」と言った。(막15:12)

(36)에서 新共同譯의 「あなたたち」는 口語譯의 일부 「あなたがた」와 「おまえたち」가 바뀐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일본어 新共同譯에서 이들 셋을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예문 (37)을 통해 일본어 新共同譯에서 이들에 대한 선택기준을 엿볼 수 있는 바, 그것은 연령의 상하나 친소의 정도 혹은 「ウチ」나 「ソト」라는 일본어 대우표현의 일반적 기준과 관련된다. 즉 新共同譯에서 「あなたがた」는 [+친밀], 「お前たち」는 [-친밀] 그리고 「あなたたち」는 [±친밀]로 친밀도에서 중립이 된다.

### 2.3. 3인칭대명사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3인칭대명사는 친소나 연령 등에 의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두 언어 모두 초기 번역본에서는 영어의 'he'나 'she'처럼 남성어와 여성어의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어는 초기 번역본부터 「かれ」가 3인칭대명사로 일찍이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니, 한국어 성서는 로스역부터 改譯까지 상당기간 3인칭대명사로 '더'와 '그' 두 가지가 나타난다<sup>9)</sup>. 그러나 복수형에서는 일본어 明治譯과 한국어 로스역 모두 「かれら」와 '더덜' 하나만 나타난다.

먼저 단수형으로 (38)은 明治譯에서, (39)~(40)은 로스역에서 추출한 것이다.

9) 3인칭대명사인 일본어 「かれ」와 한국어 '더', '그'는 출처가 다르다. 즉 한국어 '더'나 '그'는 지시어 자체가 3인칭대명사로 전성된 것인데 반해, 일본어 「かれ」는 「これ、それ、あれ」와 같은 지시대명사가 인칭대명사로 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어에도 「こ・そ・あ」가 직접 지시대명사 등으로 활용된 것이 明治譯에서는 나타나나, 大正譯에 들어오면서 모두 「これ・それ・あれ」등으로 형태변화를 일으킨다.

a. 又天より聲ありて此ハ我心に適わが愛子なりと云り (明治譯)

b. また天より聲あり、曰く『これは我が愛しむ子、わが悦ぶものなり』(大正譯) (마3:17)

- (38)a. <sup>かれおに</sup> <sup>かしら</sup> <sup>より</sup> <sup>おに</sup> <sup>おひいだ</sup>  
 バリサイのいひけるハ彼鬼の王に籍て鬼を逐出せる也 (마9:34)
- b. <sup>けがれ</sup> <sup>おに</sup> <sup>み</sup> <sup>そのまへ</sup> <sup>ひれふし</sup>  
 また汚たる鬼かれを見て其前に俯伏さけびて(막3:11)
- (39)a. <sup>주님의아달을어엽비네기소서</sup> <sup>더</sup> <sup>밋</sup> <sup>치</sup> <sup>무로</sup> <sup>고</sup> <sup>상</sup> <sup>히</sup> <sup>여</sup>  
 Lord, have mercy on my son: for he is epileptic, and suffereth grievously<sup>10</sup>);
- b. 너희나살이예수십식틀에못질한자를잡는다<sup>더</sup> <sup>닐</sup> <sup>어</sup> <sup>여</sup> <sup>괴</sup> <sup>잇</sup> <sup>지</sup> <sup>은</sup> <sup>으니</sup>  
 Ye seek Jesus, the Nazarene, who hath been crucified: he is risen; he is not here:
- (40)a. <sup>갈오디</sup> <sup>닉</sup> <sup>그</sup> <sup>제</sup> <sup>사장</sup> <sup>인</sup> <sup>줄</sup> <sup>을</sup> <sup>아</sup> <sup>지</sup> <sup>못</sup> <sup>히</sup> <sup>엿</sup> <sup>노</sup> <sup>라</sup>  
 And Paul said, I knew not, brethren, that he was high priest:
- b. <sup>오</sup> <sup>히</sup> <sup>려</sup> <sup>글</sup> <sup>에</sup> <sup>말</sup> <sup>하</sup> <sup>니</sup> <sup>바</sup> <sup>그</sup> <sup>맛</sup> <sup>당</sup> <sup>히</sup> <sup>죽</sup> <sup>으</sup> <sup>무</sup> <sup>로</sup> <sup>다</sup> <sup>시</sup> <sup>닐</sup> <sup>니</sup> <sup>라</sup> <sup>하</sup> <sup>니</sup> <sup>물</sup> <sup>아</sup> <sup>지</sup> <sup>못</sup> <sup>히</sup> <sup>고</sup>  
 For as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 that he must rise from the dead.

(38)~(40)에서 보듯이 일본어 성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he’가 로스역에서 ‘더’와 ‘그’ 둘로 실현되는데, 로스역에서 출현빈도를 보면 ‘더’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사도행전까지 조사한 결과 ‘더’는 수십 개 나타나는 데에 반해, ‘그’는 불과 6개 찾을 수 있었다<sup>11)</sup>.

다음 예문 (41)은 3인칭 복수형으로 로스역과 明治譯을 대조시켜 본 것이다.

- (41)a. <sup>더</sup> <sup>덜</sup> <sup>을</sup> <sup>듯</sup> <sup>지</sup> <sup>은</sup> <sup>으면</sup> <sup>교회</sup> <sup>에</sup> <sup>고</sup> <sup>고</sup>  
 もし<sup>かれら</sup> <sup>にも</sup> <sup>きか</sup> <sup>ず</sup> <sup>ば</sup> <sup>教會</sup> <sup>に</sup> <sup>告</sup> <sup>よ</sup> (마18:17)
- b. <sup>더</sup> <sup>덜</sup> <sup>이</sup> <sup>크</sup> <sup>게</sup> <sup>소</sup> <sup>리</sup> <sup>히</sup> <sup>머</sup> <sup>귀</sup> <sup>를</sup> <sup>갈</sup> <sup>이</sup> <sup>우</sup> <sup>고</sup> <sup>일</sup> <sup>심</sup> <sup>으로</sup> <sup>달</sup> <sup>녀</sup> <sup>들</sup> <sup>어</sup>  
 是<sup>こゝ</sup> <sup>に</sup> <sup>於</sup> <sup>て</sup> <sup>かれら</sup> <sup>おほい</sup> <sup>よび</sup> <sup>み</sup> <sup>み</sup> <sup>を</sup> <sup>おほ</sup> <sup>こころ</sup> <sup>おほ</sup> <sup>て</sup> <sup>ステ</sup> <sup>パノ</sup> <sup>の</sup> <sup>所</sup> <sup>に</sup> <sup>驅</sup> <sup>より</sup> (행7:57)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어 로스역에서는 3인칭대명사 복수형으로 ‘그들’은

10) 영어 성서는 로스역의 저본인 RV와 일치하는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인용했다.  
 広 剛(2005),P46

11) 한국어 3인칭대명사 ‘더’와 ‘그’의 변별기준은 본고와는 거리가 있는 바, 전무용(2006)을 참고하기 바라나(p113~119), 필자의 견해만을 일부 다음과 같이 밝혀둔다.  
 ‘더’는 지칭대상에 대한 청자의 인지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화자가 주도권을 지고 앞에 언급한 누군가를 지칭할 때 선택되고, ‘그’는 청자가 지칭대상을 인지한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청자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을 때 선택된다. 이것은 가시권과 비가시권을 불문하며, 다음의 예문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나의 퍽흔 종을 보라 나의 스랑흔논자요 내 므음에 띠우 깃버흔논자라 내가 내 성신을 줄터이니 더가 심판함을 외방 사람의게 알게 흘지라 그가 다토지도 아니히며 들네지도 아니히니 …”(마12:18~19)

보이지 않고, (41)과 같은 ‘더덜’뿐이다. 한편 대조적 관점에서, 한국어 로스역은 일본의 明治譯에 비해 3인칭대명사의 출현이 아주 절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2)는 明治譯의 3인칭복수형이 로스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 (42)a. イエス かれら <sup>よ</sup> <sup>たへ</sup> <sup>も</sup> <sup>いひ</sup> を 召び譬 を 以て曰けるハ  
 예수불너비사로써말하되 (막3:23)
- b. かれら <sup>おそれ</sup> <sup>たがり</sup> <sup>いひ</sup> を 互に曰けるハ <sup>かぜ</sup> <sup>うみ</sup> <sup>したが</sup> <sup>これたれ</sup> も 順ふ是誰なるぞや  
 못사람이심히두려워서로말하되이엇던사람이노바람과바다이또흐순종한다하  
 더라(막4:41)

예문 (42)를 보면, 일본어 「彼等」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 성서 (42a)에서는 생략되었고 (42b)에서는 ‘못사람’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

일본어 성서의 3인칭대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 모두 明治譯의 「彼」와 「彼等」가 大正譯부터 口語譯과 新共同譯에 이르기까지 출현빈도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로스역에서 ‘더’와 ‘그’ 두 개로 나누어진 한국어 3인칭대명사는 성서개역에 따라 분포 등에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본어와의 대조는 생략하고, 한국어 3인칭 대명사의 변화만을 살피기로 한다.

한국어 3인칭대명사 ‘더’와 ‘그’는 舊譯에서도 구분되나(43), 舊譯에서는 ‘그’의 세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改譯(1956)에 와서는 ‘더’가 구개음화된 ‘저’로 나타날 뿐 큰 변화 없이 舊譯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다가(44), 공동번역(1977)에 이르러 한국어 3인칭대명사는 ‘그’로 통합된다(45).

- (43)a. 내가 내 스자를 네 압헤 보내노니 더가 네 길을 네 압헤 예비하리라(마11:10)  
 b. 그가 여기 계시지안코 전에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스니 (마28:6)  
 c1. 그(←더)는 성신과 불노 세례를 주시리니<sup>12)</sup> (마3:11)  
 c2. 그(←더)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마27:64)
- (44)a.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더)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마17:15)  
 b.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마1:21)
- (45)a.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저)를 안다고 증언하겠다.(마10:32)  
 b. 몹시 노하여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그(←저)를 형리에게 넘겼다.(마18:34)

복수형은 로스역에서는 ‘더덜’ 하나뿐이었으나, 舊譯과 개역에서는 ‘더희(저

12)괄호 안의 화살표는 바로 이전의 번역 성서를 가리킴. (44)(45)도 동일.

회)와 ‘그들’로 나뉘다가, 공동번역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46)(47)(48)은 각각 구역과 개역, 공동번역으로부터의 발췌이다.

- (46)a. 더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야 곁으되 더가 뉘기에... (막4:41)  
 b. 예수께서 그들 압혜 또 비유를 베프러 곁으샤되 턴국은 맞치...(마13:24)  
 (47)a.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b.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갈아사대 천국은 마치 ...  
 (48)a.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b.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더희’와 ‘그들’의 대표성이다. 구역과 개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더희(저희)’가 공동번역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그들’로 통합되는데, 이는 한국어 1인칭 복수형 정중어 ‘저희’와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3인칭대명사에서 지칭대상이 여성인 경우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초기 번역 성서에서는 ‘그녀’나 「彼女」 등 여성을 지칭하는 3인칭대명사가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에는 없었다. 때문에 ‘더(그)’나 「かれ」가 남성과 여성을 함께 지칭했다. 한국어 舊譯과 일본어 大正譯을 통해 확인한다.

- (49)a. 밍서로 허락하되 그 녀즈가 무엇을 달나 하던지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식힘을 두고 곁으되 세레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소셔 하니(마14:7,8)  
 a'.ヘロデ之に何にても求むるままに與へんと誓へり。娘その母に唆かされて言ふ『バプテスマおヨハネの首を盆に載せてここに賜はれ』 (마14:7,8)  
 b. 시몬의 장모가 심흔 열병이 든지라 사름이 예수께 더를 위하야 구하니 (눅4:38)  
 b'. シモンのしゅうとめおもき熱を患ひ居たれば、人々これが爲にイエスに願ふ  
 (50)a. 南の女王、審判のとき今の世の人とともに起きて之が罪を定めん、彼はソロモンの智慧を聽かんとて地の極より来れり。(마12:42)  
 b. 심판할제 남방 녀왕이 니러나 이 세되 사름을 덩죄하리니 이는 그 녀왕이 짜 싯해서 와서 솔노몬의 지혜로운 말을 드림이어나와 솔노몬보다 더 큰이 가 여긔 있느니라(마 12:42)

(49a)의 ‘그’는 (49a)의 「娘」를 통해서, (49b)의 ‘더’는 (49b)의 「これ」가 ‘시몬의 장모’를 가리킨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여성을 지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50a)의 「彼」 역시 (50b)의 ‘그 녀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지칭한다. 이처럼 초기 두 언어의 번역 성서에서는 3인칭대명사에 남녀 구별이 없었다.

성서언어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3인칭대명사가 먼저 등장한 것은 일본어 쪽이다. 일본어에서 「彼女」라는 여성 지칭어가 口語譯에 등장하면서, 일본어 성서에서는 3인칭대명사가 남성어와 여성어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국어 성서의 경우는 본고에서 대조자료로 삼은 개역(1956)과 공동번역(1977) 모두 ‘그녀’라는 여성지칭대명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51)a. 彼女の願うものは、なんでも与えようと、彼は誓って約束までした。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마14:7)
- b. あなたはわたしに接吻をしてくれなかったが、彼女はわたし家が家にはいった時から、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 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눅7:45)
- (52)a. 彼女にはマリアという姉妹がいた。(눅10:39)
- b.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눅10:39)

(51)는 일본어 口語譯(1954)과 한국어 개역(1956)에서, (52)은 일본어 新共同譯(1988)과 한국어 공동번역(1977)에서 발췌해 대조시킨 것이다. 이들의 대조를 통해, 일본어와는 달리 한국어 성서에는 공동번역 같은 현대어 버전에 들어와도 3인칭에서 성별이 구분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한국어에 ‘그녀’라는 여성 대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아직 한국의 언중 사이에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 口語譯의 여성 3인칭대명사 출현은 당연히 복수형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아주 제한적이지만 「彼女たち」가 등장하면서 복수형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된다. 다만 복수접미사가 달라서 남성인 경우는 「彼ら」가 되고, 여성의 경우는 「彼女たち」가 되어 구분되는 현상을 보인다.

- (53)a. 彼女たちと一緒にいたほかの女たちも、このことを使徒たちに話した。(눅24:10)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눅24:10)
- b. そのほか多くの婦人たちも一緒にであった。彼女たちは、自分の持ち物を出し合って、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눅8:3)

(53a)는 일본어 口語譯과 한국어 개역을 대조한 것이고, (53b)는 新共同譯과 공동번역을 대조시킨 것이다. 각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어의 여성을 지칭하는 「彼女たち」가 한국어 성서에서는 성별의 구분 없이 ‘저희’ 혹은 ‘그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 ‘그녀’라는 여성 3인칭 단수형 대명사가 성서에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복수형의 출현은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 3. 결론

이 논문은 통시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서에 각각의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번역시기가 다른 성서 네 권씩을 비교대상으로 했다. 이들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성서로 로스역(1887), 舊譯(1912), 개역(1956), 공동번역(1977)이고, 일본어 성서로는 明治譯(1880), 大正譯(1917), 口語譯(1954), 新共同譯(1987)이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서의 번역이 거듭되면서 각 언어권의 언어문화적 특징이 성서에도 정착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인칭별로 정리한다.

첫째, 1인칭대명사이다. 단수형의 경우 초기는 각각 ‘나’와 「我」 하나였던 것들이 번역이 거듭되면서 분화한다. 한국어는 ‘나’와 ‘저’가, 일본어는 「我」「わたし」「わたくし」가 번역시기와 의미적 조건에 따라 출현을 달리한다. 복수형은 한국어에서 ‘우리’와 ‘우리들’이, 일본어에서는 「我等」「我々」「わたしたち」「わたしども」가 출현을 달리한다.

둘째, 2인칭대명사이다. 단수형의 경우 초기는 각각 ‘너’와 「爾(汝)」 하나였던 것들이 번역이 거듭되면서 분화한다. 한국어는 ‘너’와 ‘그대’ ‘당신’이, 일본어는 「なんじ」와 「あなた」「おまえ」가 번역시기와 의미적 조건에 따라 출현을 달리한다. 복수형은 한국어의 경우 ‘너희’와 ‘당신들’이, 일본어는 「なんじら」와 「あなたがた」「あなたたち」「おまえたち」가 출현조건을 달리한다.

셋째, 3인칭대명사이다. 3인칭대명사는 번역시기가 달라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단수형의 경우 초기는 각각 ‘저’ ‘그’와 「彼」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어는 ‘그’로 통합되고, 일본어는 여성을 지칭하는 「彼女」가 등장한다. 복수형도 한국어의 경우 초기에 ‘저들’ ‘그들’로 나뉘었던 것이 후에는 ‘그들’로 통합되고, 일본어는 「彼ら」 하나였던 것이 성별에 따라 「彼ら」와 「彼女たち」로 구분된다. 이를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분해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인칭	2인칭	3인칭
로 스 역 (1887)	단수	나(너)	너, 그딴	더, 그
	복수	우리	너희	더덜
구역(1912)	단수	나(너),저	너, 그딴, 당신	더, 그
	복수	우리,우리들	너희	더희,그들
개역(1956)	단수	나, 저	너, 그대, 당신	저, 그
	복수	우리, 우리들	너희, 당신들	저희,그들
공 동 변 역 (1977)	단수	나, 저	너, 그대, 당신,	그
	복수	우리, 우리들	너희, 당신들,	그들

<표1>성서 속의 한국어 인칭대명사 변화

		1인칭	2인칭	3인칭
明 治 譯 (1887)	단수	わ(わが)	なんぢ(爾)	彼
	복수	われら(我儕)	なんぢら	彼ら
大 正 譯 (1912)	단수	わ(わが)	なんじ(汝)	彼
	복수	われら(我等)	なんじら	彼ら
口 語 譯 (1956)	단수	わたし	あなた、お前、	彼、彼女
	복수	我々、わたしたち、 わたしども	あなたがた、あなた たち、お前たち	彼ら、彼女たち
新 共 同 譯 (1977)	단수	わたし、わたくし	あなた、お前	彼、彼女
	복수	我々、わたしたち、 わたしども	あなたがた、あなた たち、お前たち	彼ら、彼女たち

<표2>성서 속의 일본어 인칭대명사 변화

## 【参考文献】

- 예수성경전서(로스역, 1887)
- 유관 신약전서(舊譯, 1911)
- 성경전서(改譯, 1956)
- 공동번역성서(1977)
- 新約聖書(明治譯, 1884)
- 新約聖書(大正譯, 1917)
- 聖書(口語譯, 1954)
- 聖書(新共同譯, 1987)
-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 대한성서공회(1993), 『대한성서공회 I』 pp46~61
- 대한성서공회(1993), 『대한성서공회 II』 pp27~90
- 서정수(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 안증환·배은성(2005), 「한·일 인칭대명사 비교」, 『교육연구13』, 한남대 교육연구소
- 안증환(2007), 「성서언어의 호칭에 대한 한일비교」, 『일본문화학보34』, 한국일본문화학회
- 전무용(2006),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pp113~119
- 海老沢有道(1989), 『日本の聖書』、講談社
- 関根文之助(1982), 『聖書のことばと日本語』、福永書店
-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訳史』、新教出版
- 中沢洽樹(1971), 「聖書翻訳の緒問題」 『聖書翻訳研究3』、日本聖書協會
- 広 剛(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46

## 要 旨

本稿は韓国語の聖書と日本語の聖書において人称代名詞がどのように現れているかを通時的な観点から比較することに目的があった。本稿で対照対象にした聖書は次のとおりである。まず韓国語の聖書はロース訳(1887)・旧訳(1911)・改訳(1956)・共同翻訳(1977)で、日本語のは明治訳(1884)・大正訳(1917)・口語訳(1954)・新共同訳(1987)である。研究の結果を一言でまとめると、聖書の翻訳が重なるにつれて、それぞれの言語文化の特徴が聖書の中に着実に定着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る。人称ごとに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第一、1人称代名詞である。単数形の場合、初期は両方とも'나'と「我」とで一つだけであったのが翻訳が重なるに従って分化していく。つまり、韓国語では'나'と'저'が、日本語では「我」「わたし」「わたくし」が翻訳時期と意味的条件により出現を異にする。複数形は韓国語では'우리'と'우리들'が、日本語では「我ら」「我々」「私たち」「私ども」が出現の条件を異にする。

第二、2人称代名詞である。単数形の場合、初期はそれぞれ'너'と「なんじ」で一つだけであったが、翻訳が重なると共に分化する。韓国語は'너'・'그대'・'당신'が、日本語では「汝」「あなた」「お前」が聖書の翻訳時期や各々の意味的条件に従って出現を異にする。複数形は韓国語では'너희'・'당신들'が、日本語では「なんじら」「あなたがた」「あなたたち」「お前たち」がそうである。

第三、3人称代名詞である。3人称代名詞の変化は比較的単純である。ただし、日本語では3人称単数形が「かれ」一つだったが、韓国語では初期本で'저'と'그'に分けられていた。韓国語ではこれが後になっては'그'に統合し、日本語では女性を表す「彼女」が新たに登場する。複数形においても韓国語では初期に'저들'と'그들'に分けられていたのが後になって'그들'に統合し、日本語は「彼ら」一つだったのが性別によって「彼ら」と「彼女たち」に分けられる。

キーワード : 翻訳聖書、通時の研究、人称代名詞、単数形と複数形、  
女性3人称代名詞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